

日本陶邑古窯群

金元龍

一、

日本の須惠器가 우리나라의 所謂新羅土器에서 由來한 것은 周知의事實이며 須惠器의 研究結果는 新羅土器의 研究를 爲해 直接 關連되고 있어 우리의 恒常 關心거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須惠器生産에 앞서 新羅土器가 直接 輸入된 時期가 있었고 實地로 그러한 舶載新羅土器가 나오고 있는데 이 新羅土器日本舶來의 開始는 從來 五世紀前半頃이라고 보아 왔는데 近來에는 더 오히려 四世紀代로 하고 따라서 須惠器의 生産開始를 五世紀로 보는 見解가 有力해지고 있다 ①

그런데 이 舶載新羅土器에서 生産段階로 넘어가는 過程에 대해서 橫山浩一氏는

「四世紀末 또는 五世紀初로 推定되므로 岐阜縣遊塚古墳에서 新羅土器高杯의 뚜껑이 寶器의인 存在로 副葬되고 있는 것으로서 아다시피 須惠器의 開始에 앞서 支配者層사이에서 陶質土器에 대한 強한 憧憬이 있었으며 須惠器生産은 이러한 支配階級の 奢侈的要求에 對應한 것으로 須惠器工人의 受容은 아마도(大和) 政權의 關與下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②

고하여 新羅土器가 支配階級사이에서 奢侈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推測하고 있다. 이러한 見解는 實질히 妥當性이 있으나 新羅土器가 처음에 寶器의인 待遇를 받고 奢侈品化한것은 外國品으로서의 稀少價値가 理由이겠지만 新羅土器가 日本在來의 하지(土師)土器와는 比較도 안되는 越等한 硬實實用土器라는 點이 보다 根源的인 理由였을 것이고 그

民間普及은 必要不可缺의 必然性에 依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樣相은 亂當時 茶器生産을 爲해 끌려간 朝鮮陶工들이 結局은 日本磁器의 開發者들로 된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二、

却說 上記한바와 같은 舶載新羅土器들은 大阪南쪽의 和歌出縣의 紀川江口平野一帶의 古墳 또는 其他遺蹟에서 發見되고 있는데 이와 接하고 있는 大阪府界(사카이)市南部의 泉北丘陵에는 初期須惠器窯址가 물려있어 이一帶는 日本에서의 新羅土器나 須惠器研究上 核心的인 地域으로 되고 있다. (第一圖)

이 泉北丘陵의 窯址群存在는 일찍부터 알려지고 있었고 그 地域은 日本書紀의 崇神天皇條에 「茅渟縣陶邑」이라고 나온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現在도 「東陶器」「西陶器」「釜室」등 窯業과 關連된 地名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 ③

여기 窯址는 東西約 一五km、南北九km에 걸친 廣汎한 地域에 千基以上이 모여 있으며 五—一〇世紀까지 사이에는 日本最大의 須惠生産地로서 有名하였다. 이 窯址들이 發掘된것은 여기에 泉北뉴타운이 建設되기앞선 一九六六年부터이며 그 調査는 現在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 窯址群은 古名을 따서 陶邑(스에무라)窯跡이라고 命名되고 있다.

이 發掘調査의 結果는 分冊發刊되고 있으며 特히 一九七五年까지 調査된 大野池光明池區域의 窯址二七〇餘基는 『陶邑』이라고 하여



圖 1. 陶邑位置

本文圖版2冊으로 一九七六年 出刊되었다.

다음에 이報告書에 依해서 陶器窯址와 그 土器相을 簡略하게 紹介하
고 이 日本須惠器窯研究成果가 우리 新羅土器研究에 던지는 貢獻과 課
題들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三、

여기 窯址들은 海拔六〇〇~七〇m 정도의 頂上이 平坦한 北走丘陵支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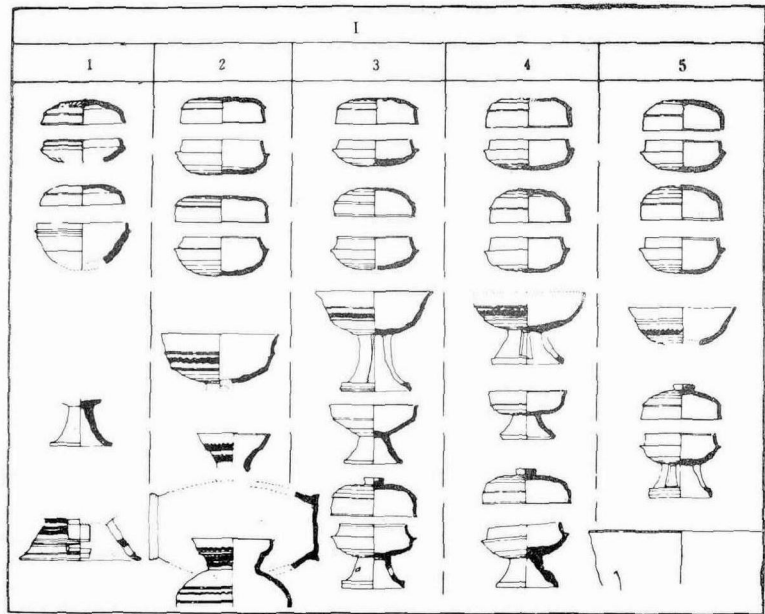


圖 2. I 型式

들의 斜面에 群在하고 있으며 溪谷이 道路·支道를 形成하고 있고 古墳
들과 混在하고 있다.

窯는 二〇~三〇度程度の 傾斜를 가진 登窯이며 길이는 一〇m 以上,
幅 二~二·五m 정도이고 比較的完全한 第一一五號窯의 경우 火室의 길
이 一·六m, 幅 一·五m, 燒成部 길이 一·八m, 最大幅 一·九m
이다.

土器는 I에서 V까지의 五型式·各型式은 다시 몇개의 發展段階로
分類되고 있으며 이것이 即 編年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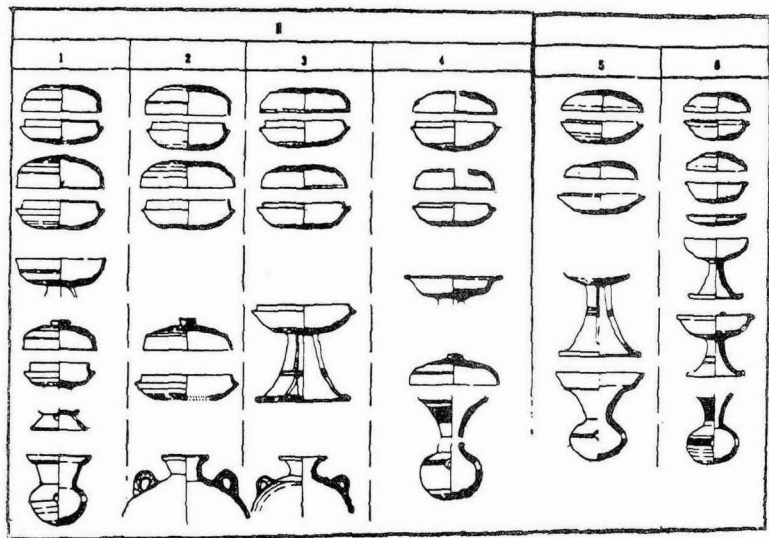


圖 3. II 型式

器種이 이에 該當되는듯 하다.

以上과 같은 型式發展과 存續期間을 一且 받아들일때 日本에서의 須惠器生産은 앞서 잠간 言及한것처럼 五世紀로 認定되고 있고 北野耕平氏は 더 좁혀서 四三〇~四〇年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④ 이年代를 基準으로 하면 各型式의 推定實年代는 다음처럼 된다.

I 型式 四三〇—五三〇(大略五世紀)

II 型式 五一〇—六一〇(大略六世紀)

III 型式 六一〇—六六〇(大略七世紀前半)

IV 型式 六六〇—七六〇(七世紀後半~八世紀前半)

V 型式 七六〇—八六〇(八世紀後半·九世紀 前半)

다음으로 各型式의 特色을 보면 I 型式은 生産開始期며 高杯의 다리가 짧고 II 型式은 高杯다리가 길어진時期, III 型式은 뚜껑에 寶珠形꼭지가 나타나고 뚜껑의 曲線이 끝 부분에서 다시若干 들리고 形의 高臺釜도 出現, IV 型式은 뚜껑 끝 部分의 反轉이 消失하고 全體적으로 納작해진다. V 型式은 바닥을 물레에서 梅어낼때 실을 使用해 貝殼같은 同心密集圓文의 所謂「糸切」흔적이 나타난다.

우리 新羅土器의 大體的인 編年에 關해서는 따로 原稿를 作成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詳論하지 않겠으나 新羅土器는 大體로 早期(三~四世紀), 前期(五世紀), 後期(六世紀), 晚期(七世紀)로 가를수 있는듯 하며 이것을 여기 陶邑土器와 比較하면 I 型式은 前期, II 型式은 後期, III, IV 型式은 晚期와 大體로 通하고 있다.

四、

陶邑窯址土器型式의 各 段階別의 細部變化는 옮기지 않았으나 五型式의 設定은 合理的인것 같고 이 編年案은 우리 新羅土器編年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

여기 陶邑窯土器는 同一生産地라는데서 全體를 「陶邑土器」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生産地域이 다른 土器들이 모여 있을 古墳土器一括土器類와는 달리 編年이나 形式變遷研究上 좋은 資料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日本内에서의 須惠器의 形式變遷이고 當然히 우리나라 新羅土器로부터의 刺戟이나 影響이 그 形式變化의 原因이 되었을경우도 있었겠지만 土器는 生活樣式과 密接하게 關係됨으로 日本自體의 器形變遷이 보다 基本的이었을 것이며 그래서 須惠器의 形式變化나 編年을 그대로 우리 新羅土器形式變化에 直結시킬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將次 우리側의 形式分類가 細密하게 이루어지면 日本 것과 比較하면 서서로 問題明에 도움이 될것이 分明하다. 우리나라에서도 共同研究에 依한 新羅土器全體의 編年作業이 어서 시작되어야 할것 같다.

(註)

①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는 森浩「須惠器初期의 樣相と 上限의 問題」日本考古學協會 第二七回總會研究發表要旨(一九六一年) 및 橫山浩「土器生産」日本の考古學, 古墳時代下(一九六六年)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關西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紀要의 『和歌山市における古墳文化』(一九七二年)所收 「わが國における初期須惠器の問題」(網干善教)가 全般的으로 다루고 있다.

또 北野耕平 『河内野中古墳의 研究』(一九七六年)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北野氏는 須惠生産開始年代를 「五世紀前半이라고도 中葉에서 나무 올라가지 않는다고 推測하기 때문에 이 野中古墳(五世紀後半)被葬者가 生前여기 副葬된 이들(新羅土器)을 入手한 段階든지 또는 若干 뒤떨어져 伽倻地域에서 陶工의 後渡來가 있던 後 須惠器의 製作이 시작되었다는 見解를 取하고 있다」(p. 二一九)고 말하고 있다.

② 橫山浩「前掲書(網干善教 前掲書) p. 一七七引用 再引)

③ 大阪府教育委員會『陶邑』I(一九七六) pp. 一~二

註 ① 北野耕平條參照。

(서울대 人文大 教授)